

자료제공: 2023. 4. 26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교통운영과, 버스정책과
(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)

교통운영과장	김상신	2133-2260
BRT팀장	한정환	2133-2471
담 당 자	조혜진	2133-2456
	김윤희	2133-2476
버스정책과장	이진구	2133-2260
노선팀장	박흥식	2133-2281
담 당 자	이겨라	2133-2283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7매

서울시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 위해 5월 중 버스전용차로 설치

- 시, '교통운영 개선대책' 신속히 추진...골드라인→버스 수요 분산 단계별 대책 나서
- 5월 개화~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설치·버스 투입 협조...단기방안 즉시 착수
- 도로 신호운영·교차로 개선해 원활한 주행 환경 확보, 버스 이용편의 증진
- 서울시·대광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...“수도권 시민 교통 편의 최우선”

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'교통운영 개선대책'을 신속히 추진한다. 특히 김포골드라인 대체 수단인 버스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화~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5월 말까지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.

- ‘교통운영 개선대책’에서는 ▲버스전용차로 5월 내 설치 ▲버스 증차 협조 및 정류장 혼잡 개선 ▲서울 진입구간 도로확장 ▲신호 운영 개선 ▲불법주정차 단속 등 대책을 시행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.
- 서울시와 대광위는 지난 19일 경기도·김포시 등과 함께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 관계부처 전담팀(TF)을 구성하고,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버스 투입, 열차 증편, 지하철 연장, 안전관리 강화 등 혼잡 완화를 위해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.
- 특히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단기·중기 단계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교통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.

〈 김포골드라인 ‘교통운영 개선대책’ 추진사항 〉

단기 5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버스로의 수요 분산 유도

- ① 개화→김포공항역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
- ② 버스 증차 협조 및 정류장 혼잡 개선
- ③ 시 경계구간 서울방면 도로 확장
- ④ 신호운영 개선을 통한 교통소통 원활화
- ⑤ 교차로 운영 개선 및 불법주정차 단속

중기 전반적인 도로축 체계 점검을 통한 교통 흐름 개선

- ① 개화동로 축 교통체계 종합점검 및 운영개선방안 검토

〈골드라인〉버스 수요 분산 단기대책·서울시, 전용차로 설치기간 단축·버스 증차 협조

- 첫째, 서울시는 가장 시급한 개화 ~ 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최단 시간 내 설치 할 계획이다. 통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하는 최소 4~5개월 이상 소요되지만, 수도권 이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가 매우 시급한 만큼,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1개월 내외로 단축하여 5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.
- 서울시는 ‘개화~김포공항’ 2km 구간 버스전용차로 설치 필요성에 대해 대광위·김포시와 의견을 같이 했고,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소 4~5개월 소요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 일정을 ▲ 설계안 마련 및 경찰청 협의 ▲ 공사사행 ▲ 버스전용차로 고시 등 분야별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해 1개월 내외로 단축하였다.



[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신규 설치구간]

- 다만, 일반 승용차와 차로를 공유하고, 도로의 구조적 영향을 많이 받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한계가 있어,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신설구간에 차로 조정,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등을 통해 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.
- 고속도로 나들목, 지하차도, 교차로 등이 다수 위치한 구간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대부분 점선으로 설치되어 실선구간 합계가 800m에 불과하고 버스전용차로 내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.

- 둘째, 경기도, 김포시의 버스 증차 협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.
- 현재 70번 8회, 3000번 6회 운행이 가능토록 조치를 완료했으며,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가 버스 증차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.
- 다만, 향후 도로정체로 인한 운행효율성을 고려하여 김포공항역을 포함하여 목적지가 다양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.
-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김포골드라인과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김포시 시내버스 70번 노선의 증회(8회) 요청을 즉시 수용(4.12.)하여, 출근시간대 서울시 김포공항역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4.24.일부터 15분 배차간격에서 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되도록 협의했다.
 - 3000번 노선에도 전세버스 증회(6회) 요청을 즉시 수용하여, 신촌역으로 진입하는 김포시민들이 걸포북변역(3000A, 2회), 사우역(3000B, 2회), 풍무역(3000C, 2회)에서 추가 투입되는 버스를 5.1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다만, 향후 김포공항역에 진입하는 70번 노선에 일괄 증회시 출근시간대 도로정체 가중으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, 배차 지연 등 운행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바, 버스 이용 패턴에 따라 다양한 목적지로 노선이 분산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담팀(TF)에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.
 - 또한, 김포공항역 버스정류소 이용수요를 모니터링하며 혼잡 발생시 승객 승하차 위치 분산을 위한 정류소 혼잡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.

- 셋째, 서울 진입 구간 차로를 추가 설치(2→3차로)하고, 올림픽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를 설치해 원활한 버스 통행 환경을 마련한다. 공사 완료 시 개화교~행주대교남단 교차로까지 통과하는데 약 8분가량 걸렸던 통행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서울시는 김포시에서 건의한 올림픽대로 방향 우회전차로 확장 외에 추가적으로 김포대로에서 개화동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서울방면 차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한다. 특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단시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.



- 넷째, 늘어나는 버스 수요 및 출퇴근 교통 패턴을 반영하여 개화동로 축 전체의 신호시간을 검토하고, 서울방면 신호시간을 증가시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한다.
-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등의 신호주기를 조정하여 차량 정지를 최소화 하고 김포공항 방면 버스 정체 완화를 목표로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예정이다.



□ 다섯째, **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** 및, 출퇴근 시간대 **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현장 교통상황을 관리**한다.

- 개화동로 구간 직진차로 추가, 김포공항역 방면 우회전차로 연장, 버스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차로 폭 확대 및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등 교차로 개선을 통해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버스의 원활한 주행을 돕는다.
- 또한 출퇴근 시간 개화동로 화훼집하장 주변 조업차량 및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관리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이다.

<중기 대책으로 개화동로 축 교통체계 종합점검 및 개선·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>

- 중기 대책으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변화된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점단위 개선에서 벗어나 도로 축 전체의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한다. 이를 위해 ▲전체구간 차로조정 ▲병목 개선 ▲횡단보도·정류소 주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한다.
-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전·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흐름 및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분석하고,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


- 아울러, 서울시는 이번 교통운영 개선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광위, 경기도, 김포시, 서울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5월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